

## AI 2단계 예타 면제·광천권역 도시철도 지선 '청신호'

●尹대통령, 광주서 28번째 민생토론회

姜시장 건의에 “예타 면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  
광천권역 교통대책 “국토부에 긍정 검토 후 보고 지시” 약속  
“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과 협의토록 노력할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차질 없는 AI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올해 말이면 국가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속도의 경쟁을 이겨내려면 곧바로 2단계 AI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며 “2단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예타 면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AI 2단계가 추

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사후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생토론회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던 AI 1 2단계 예타 면제는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다”며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AI사업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예타 면제 사업의 필요성은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광주시와 관련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구상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며 “대통령께서 예타 면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광주시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尹대통령 5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이날 강 시장은 또 광천권역 복합소방물 교통인프라 확충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천권역은 복합소방물, 백화점 확장 등으로 교통 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라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더불어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

선 건립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이 이날 요청한 AI 2단계 사업에 타 면제와 광천권역 복합소방물 교통인프라 확충은 광주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무엇보다 약속받고 싶었던 최현안이다. 윤 대통령의 ‘적극 검토’ 약속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이날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자체 간 갈등과 국방부의 관심 소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말씀해서서 국방부가 적극 나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

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군에 이야기했다”며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정 비행장(광주 군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박성강 기자

## ‘판소리, 모두의 울림’...광주비엔날레 막 오른다

오늘 중의공원 야외공연장서 제15회 행사 개막식  
예술감독이 기획한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인간·기계·동물·영혼·유기 생명체 모두가 공유하는 ‘관계적 공간’을 재사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화된 행정 지구에서부터 더 큰 세상에 대한 탐구를 선보인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는 30개 국가 72명의 작가가 참여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펼쳐낸다.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시퀀스를 이용해 구성될 본전시는 동시대의 공간을 창의적 방식으로 구현하며 판소리 정신을 재현할 예정이다.

용봉동 비엔날레전시장에서 진행될 본전시는 ▲부딪힘소리(Larsen effect) ▲겹침소리(Polyphony) ▲저음소리(Primal sound) 등 총 3개 섹션으로 나눠 각종의 주제와 분위기에 맞게 꾸며진다.  
또 다른 본전시장으로 활용될 양림동에서는 일상생활 공간에 작품을 설치해 예술과 삶 사이의 공존·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옛 파출소와 빈집을 비롯해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한부칼갤러리 ▲한희원미술관 등 동네 곳곳에 자리잡은 문화예술기관 8개 장소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한편, 6일 오후 6시 시작될 개막식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환영사를 비롯해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의 전시 개요 설명 및 참여 작가 소개, 창설 30주년 세레모니가 진행된다. 이어 소설가 한강 작가의 글을 기반으로 한 참여 작가들의 실험적인 개막 공연 퍼포먼스가 대미를 장식한다. /최명진 기자

## ‘공항 연석회의’ 일단 광주 간담회로 출발

市·道 입장 차 커 전남서도 별도 진행 조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관하는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정치권 연석회의가 일단 광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로만 열린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연석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5명의 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하면서, 5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시구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근택·민형배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국 광주구청장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 전남에서도 간담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전남도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견해 차이가 분명한 만큼 이견을 조율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광주시, 전남도, 정치권 모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강 기자

### 제16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마감 9.30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일회 접수 인정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용양식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 (장정별)

출품수: 4점 이내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4년 10월 7일(월)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강당

심사결과발표: 2024년 10월 10일(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www.kjdaily.com

개전 및 시상일시: 2024년 11월 6일(수) 오후 2시

시상장소: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예정)

**시상 내역**

1.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2.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3.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작품반송**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작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o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위소함)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 함.

초대작가 16"×20" 작품 e-mail 제출 (kjkg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